

# 만생명 살리는 관음보살 현신 도량



법맥의 얼굴 혜산스님

## 한 도량서 40년...내소사의 '한 부분'

은사어인 혜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 도량 만들기에 온 정성을 다하는 혜산 스님. 그 원력의 정점에 지난해에 마무리한 '봉래선원'이 있다. 1963년에 이곳으로 옮겨왔으니 어언 40년이다. 수행자가 한 도량에서 이렇듯 세월이 흐른 시간의 길고 짧음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스님은 내소사의 한 부분이다.



## 변산 내소사

현 스님이 창건했다고 하니 1400년에 가까운 고찰입니다. 이후 1633년(인조 11)에 청민(淸旻) 스님이 증건하였다 합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관해(觀海), 민허(愍虛), 해안(海安), 혜산(惠山) 스님으로 이어 오면서 오늘에 이릅니다. 특히 지금은 회주이신 혜산 스님이 1983년 주지를 맡고부터 20년 동안 진행해온 불사는, 석축 하나 쌓는 일에도 세심한 배려와 최고의 정성으로 고찰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살려 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300살이라는 보리수를 스쳐 지나면 종각입니다. 고려 후기에 조성된 동종(銅鐘) 제277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높이가 1.3m에 불과한 종이지만 용뉴의 정교함과 당초와 연화문, 구름 위에 모신 삼존상은 승고미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내소사의 청아한 분위기가 이 종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종각에서 대웅전 쪽으로 몇 걸음 옮기면 봉래루가 눈앞에 솟아옵니다. 장식이 거의 없는 담백한 구조미가 절정의 미덕을 잘 보여줍니다. 24개의 기둥 높이가 제각각인데,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주춧돌의 높이로 구조적 안정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봉래루를 지나 또 한번 키를 올리면 대웅전 앞마당입니다. 오른쪽 한 편에 설선당과 요사(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25호)가 모자 구조로 합쳐져 있습니다. 굳터더기가 거의 없는 청빈의 아름다움을 반짝이는 건물입니다.



◇웅의 머리를 조각한 보머리. 여의주 대신 잉어를 물고 있다.

조금씩 하늘로 향하는 도량이 절정을 이룬 곳. 그곳에 대웅보전(보물 제291호)이 있습니다. 빛바랜 단청을 나뭇잎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웅만한 단청으로는 그 당당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소사 대웅보전의 8짝 꽃살문은 누구에게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연꽃과 국화 등의 꽃 무늬가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듯 새겨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비가 내려 앉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살피면,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꽃잎을 새로 만들어 붙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박물관에 가두어진 문화재와 달리 비 맞고 눈 맞으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절교 문화재란 미덕입니다.

대웅보전의 내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천

정의 꽃무늬나 보 머리의 웅 조각도 고개를 한참이나 올려 세우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상 뒤편의 벽면으로 삼박이 걸음을 옮기면 현존하는 것 중 가장 큰 백의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소사를 품에 안은 봉래산 관음봉과 절묘한 짝을 이룬 듯합니다.

내소사(來蘇寺)의 본디 이름은 소래사(蘇來寺)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곳에 시주를 했다고 해서 내소사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전하는데, 사대의 냄새가 묻힌 풍기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만 생명이 이곳에 오면 다 소생하는 절이 내소사입니다. 관음보살의 현신 도량인 것입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가장자리'에도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물의 외형을 골지우는 것이 그 하나고, 안팎이 여의하여 '속'과 '분리' 불가능한 가장자리'가 다른 하나일 것입니다. 서해 절경을 다 불러모은 듯한 곳. 변산반도 안과 밖의 어우러짐이, 관소리 가락과 고수의 공함 좋은 장단만큼이나 멋들어진 땅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다채로운도 영락없이 관소리 가락을 담았습니다.

꽤이제는 듯한 바람이 절해고도의 모습을 보여 주는가 싶으면 어느새 너른 돌판을 펼쳐 놓고, 굽이돌 때마다 굽없이 이어지는 것밖에 실증이라도 날라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금빛 모랫길을 속 내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변산은 바다를 낀 외변산과 산주를 깊은 내변산으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바다와 산의 조화를 강조한 발상인 듯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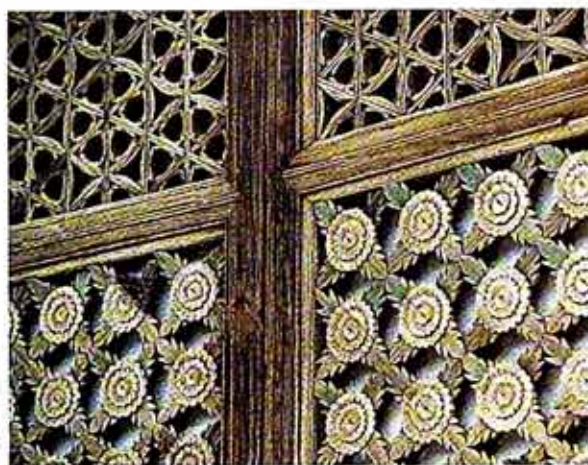
서해의 보석 같은 땅, 변산반도. 그 꼭지점이라 할 채석강에서 내변산의 길고 그윽한 곳으로 다가가면 거기에 '내소사'가 있습니다.

## 633년 창건 ...古刹분위기 고스란히 이어와 대웅전 8짝 꽃살문 금방이라도 나비 내려 앉을 듯

내소사의 사실상 일주문은 '전나무 숲길'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는 딸그대로 하나의 기둥(柱)이고, 그 나무들이 만들어낸 숲은 커다란 문(門)입니다. 열고 닫을 일이 없는 문입니다.

전나무 숲길이 끝나면 늙은 단풍나무가 하늘 아래에 또 하나의 하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엄이 서린 나무입니다. 모진 풍상 다 견뎌낸 인고의 세월이 만들어낸 단관을 봅니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전각들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대웅전 꽃살문이 이를 높이고 해서 성미 그곳으로 치달을 일은 아닙니다. 잠시, 천년을 살아온 느티나무 밑에서 내소사의 역사를 더듬어 봅니다. 633년(백제 무왕 34), 해구 두타(惠丘 頭)



◇대웅보전의 꽃살문. 이것만으로도 내소사는 소중한 절입니다.



◇굳터더기 없는 누각, 빛바랜 단청의 대웅보전이 우람한 수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2002년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안내

가야산 해인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19회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이고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이며, 25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 최대의 수행도량입니다.

수련회는 일상의 분주한 일 때문에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만나게 해 줍니다. 하루 세끼 공양하는 일이나 걸음걸이 하나, 심지어 해우소에서 배설하는 일까지 소중한 수행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일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엄격한 일인지를 깨닫고 흥정망정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에게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해인사의 수련회 일정은 참선과 묵언 등 엄격하고 신심 있는 내용으로 스님들과 똑같은 수행 코스로 유명하며, 이러한 4박 5일의 기간을 통해 단기 출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인사의 새벽 예불은 타성에 젖은 수련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잔잔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들, 아래의 일정과 절차로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련주제 : "지금 이 자리가 깨달음의 현장이다"
- 여름 수련회 일정

기 간	연 령	대 상 자	인 원
1차 6월25일(화) ~ 6월29일(토)	20 ~ 60세 이하	일 반 인	130명
2차 7월 2일(화) ~ 7월 6일(토)	.	.	130명
3차 7월 9일(화) ~ 7월13일(토)	.	.	130명
4차 7월16일(화) ~ 7월20일(토)	.	.	130명
5차 7월23일(화) ~ 7월27일(토)	.	.	130명
6차 7월30일(화) ~ 8월 1일(목)	14 ~ 19세이하	중·고등부	150명
7차 8월 6일(화) ~ 8월10일(토)	20 ~ 60세이하	일 반 인	130명

- 신청방법 : 1)접수기간 : 2002년 5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2)접수처 : 법보종찰 해인사 포교국  
3)신청서 :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와 참가하고자 하는 자수를 적어 홈페이지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통보 및 접수 : 1)수련회 참가비 : 일반부 8만원, 중·고등부 6만원  
2)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하며, 수련생으로 확정되면 개별통보하며 참가비는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농협 843174-51-006770 (예금주: 해인사) ·우체국 611806-01-000455 (예금주: 해인사)  
·접수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일 전에 불참을 통보한 경우는 예외
- 수련회장소 : 해인사 보경당
-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하얀 고무신, 하얀 양말, 운동화, 쌀 1되와 상·하 승복이 있는 분은 가져올 것
- 접수안내 : 055-932-7430, 932-5822 팩스 055-932-6448 ■인터넷 접수 : www.haein-sa.org
- 해인사 수련 경험에 있는 분으로서 수련회를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서울, 경기 지역 참가자는 매 수련회 당일 오전 7시에 서울 강남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합천고속 관광버스가 출발하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055-931-1390 핸드폰 017-587-1390 장태용 기사)